

디모데전서: 함께 읽는 성경 공부

교회의 가르침과 공동생활을 신뢰할 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디모데전서는 해로운 가르침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지 디모데에게 지침을 제시합니다. 관심사에는 기도, 신뢰할 만한 지도력, 취약한 사람 돌봄, 탐욕의 위험이 포함됩니다. 건전한 가르침은 그것이 낳는 사랑과 경건으로도 평가됩니다. 특히 여성의 가르침과 지도력 등 일부 적용에서 중요한 기독교 내부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면서, 어려운 지침들을 편지의 목회적 목적 안에서 읽으세요.

편지를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읽기

편지는 바울을 밝히고 디모데의 임무를 에베소에 둡니다. 전통적인 배경은 사도행전에 서술된 시기 이후의 사역이지만, 많은 학자는 바울 전통 안에서 후대에 작성되었다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여정과 연대에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며, 이는 가르침, 지도력, 가정생활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인정한 후대의 분류입니다.

성경 참조: 딤후 1:1-7 · 딤후 3:14-16

출처: primary, brown

논증 따라가기

논증은 신실한 가르침의 목표에서 공적 기도, 지도자의 성품, 디모데의 모범, 조직적인 돌봄, 재물의 사용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묘사되며, 의심할 수 없는 권위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2:15의 출산에 관한 진술에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이를 출산의 의학적 안전에 대한 보장이나 여성이 어머니가 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참조: 딤후 2:1-15 · 딤후 4:1 - 딤후 6:21

출처: primary

사랑을 낳는 가르침

딤후 1:1-20

편지는 추측에 치우친 가르침과 율법의 오용을 직면하게 한 뒤 바울에게 베풀어진 긍휼을 회고합니다. 명시된 목표는 사랑을 깨닫는 마음,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과 연결합니다. 디모데에게 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믿음과 양심을 함께 지키는 것이며, 교리적 정확성을 잔인함의 허락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기

어떤 결과를 보면 신실한 가르침과 논쟁만 늘리는 주장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기도, 행동, 논쟁적인 지침

딤후전 2:1-15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그리스도의 중보에 근거합니다. 지침은 분노, 과시, 배움, 가르치는 권위를 다룹니다. 상보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가르치는 권위에 성별과 관련된 지속적인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평등론을 따르는 이들은 대체로 지역적 제약과 더 넓은 성경의 증거를 강조합니다. 양쪽 모두 어려운 논증을 무시하거나 여성의 제자도를 주변화하지 말고 본문을 세심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기

이 장이 분명히 격려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질문은 합의를 가정하기보다 여러 해석을 비교해야 하나요?

성품으로 검증되는 지도력

딤편 3:1-16

감독과 집사의 자격은 신실함, 절제, 환대, 가정에서의 행동, 평판을 강조합니다. 교회들은 직분 구조와 3:11이 여성 집사인지 집사의 아내인지에 관해 견해가 다릅니다. 신뢰성의 중심 기준은 매력, 재산, 특별한 지위에 대한 지도자의 주장이 아니라 성품과 검증된 섬김입니다.

생각해 보기

공동체가 재능에 감탄할 때 가장 쉽게 놓치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따를 만한 삶과 가르침

딤후 4:1-16

결혼과 음식을 금하는 것에 대한 경고는 감사, 훈련된 경건, 공적인 낭독, 권면,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디모데는 행동과 교리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젊다는 사실이 책임을 없애지 않으며, 그의 성장은 자동적인 존중을 요구하기보다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생각해 보기

교사의 습관은 가르침의 내용을 어떻게 더 신뢰할 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돌봄, 존중, 책임

딤편 5:1 – 딤편 6:2

지침들은 가족의 책임과 과부를 위한 조직적인 지원을 구별하고, 장로와 고발 문제를 다루며, 노예 상태의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절차는 잘못된 은폐가 아니라 공정함을 추구합니다. 노예제에 관한 지침은 강압적인 고대 상황을 다룹니다. 사람을 소유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확립하거나 노예 상태인 이들의 존엄성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기

교회는 실제적인 돌봄, 공정한 절차, 잘못을 감싸지 않는 태도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나요?

탐욕 없는 경건

딤후전 6:3-21

마지막 장은 종교를 재정적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족, 덕의 추구, 하나님을 신뢰함은 재물에 대한 의존과 대조됩니다. 부유한 신자들은 자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부름받습니다. 재산은 더 뛰어난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은 공부를 신실한 청지기 역할로 되돌립니다.

생각해 보기

자원을 관대하게 사용하는 것과 그 안에서 안전과 지위를 찾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출처

- [primary] 1 Timothy; primary biblical text. Reading references only; no Bible text is reproduced in this resource. <https://ebible.org/eng-web/1Ti.htm>
- [brown] Raymond E. Brown,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Doubleday, 1997), chapter 30. Background and scholarly discussion; not an endorsement of every interpretation in this study.

자체 제작한 자료의 글과 이미지: CC BY 4.0. 성경 본문과 제삼자 자료는 제외됩니다.

Pauline Letters · CC BY 4.0 · <https://paulineletters.com/ko/explore/resources/study-1-timothy>